洪 吟

홍 음

(二)

李 洪 志

차 례

堅定 ····· 2
견정(堅定) ····· 3
無題 ····· 4
무제(無題) ····· 5
見真性 ····· 6
진성이 보이노라 ····· 7
心自明 ····· 8
심자명(心自明) ····· 9
報應 ····· 12
응보 ····· 13
法網 ····· 14
법망(法網) ····· 15
正大穹 ····· 16
대궁을 바로잡다 ····· 17
普照 ····· 18
널리 비추다 ····· 19
除惡 ····· 20
악을 제거하다 ····· 21
無 ····· 22
무(無) ····· 23
留意 ····· 24
유의(留意) ····· 25
行中 ····· 26
행중(行中) ····· 27

解大劫 ····· 28
대겁(大劫)을 풀다 ····· 29
得道明 ····· 30
득도명(得道明) ····· 31
無迷 ····· 32
무미(無迷) ····· 33
道中行 ····· 34
도중행(道中行) ····· 35
去執 ····· 36
고집을 버려라 ····· 37
無阻 ····· 38
가로막지 못하리 ····· 39
緣結蓮開 ····· 40
인연 맺어 연꽃으로 피네 ····· 41
漸齊 ····· 42
가지런히 드러나누나 ····· 43
真言 ····· 44
진언(真言) ····· 45
秋風涼 ····· 46
가을바람 서늘하구나 ····· 47
預 ····· 48
예견 ····· 49
大道行 ····· 52
대도행(大道行) ····· 53
劫 ····· 54
겁(劫) ····· 55
掃除 ····· 56
소제(掃除) ····· 57
必然 ····· 60
필연(必然) ····· 61

큰 겁

법이 거대한 창궁 바로잡고 쌓인 먼지 털어내나니
아득한 천지 도처에 봄이로다
유유한 만고의 거대한 기세 지나간 후
새 우주의 불도신을 다시 보리라

2004년 3월 8일

洪劫

法正洪穹除舊塵
天地茫茫處處春
悠悠萬古洪勢過
再看新宇佛道神

二零零四年三月八日

淘 ····· 62
일다(淘) ····· 63
大舞台 ····· 64
큰 무대 ····· 65
戲一台 ····· 66
연극 한 편 ····· 67
精進正悟 ····· 68
정진정오(精進正悟) ····· 69
法正乾坤 ····· 70
법정건곤(法正乾坤) ····· 71
大法好 ····· 72
대법은 좋다 ····· 73
鐘樓 ····· 76
종루(鐘樓) ····· 77
鼓樓 ····· 78
고루(鼓樓) ····· 79
佛法無邊 ····· 80
불법은 끝없어라 ····· 81
入無生之門 ····· 82
무생지문(無生之門)에 들다 ····· 83
如來 ····· 84
여래(如來) ····· 85
正念正行 ····· 88
정념정행(正念正行) ····· 89
神路難 ····· 90
신의 길은 어렵나니 ····· 91
正神 ····· 92
정신(正神) ····· 93
天又清 ····· 94
하늘이 다시 맑다 ····· 95

震懾 ····· 96
두려워 떨게 하다 ····· 97
快講 ····· 98
빨리 알려라 ····· 99
清醒 ····· 100
청성(清醒) ····· 101
誰迷 ····· 102
누가 미혹 되었는가 ····· 103
網在收 ····· 104
그물을 당기다 ····· 105
還吧 ····· 106
갚아라 ····· 107
神威 ····· 108
신위(神威) ····· 109
圍剿 ····· 110
포위 토벌 ····· 111
梅 元曲 ····· 112
매화 원곡 ····· 113
下塵 ····· 116
인간세상으로 내려오다 ····· 117
大法行 宋詞 ····· 120
대법행(大法行) 송사 ····· 121
一念中 ····· 124
일념중(一念中) ····· 125
唐風 ····· 126
당풍(唐風) ····· 127
看好 ····· 128
똑똑히 보아라 ····· 129
讀學員文章 ····· 130
수련생 문장을 읽다 ····· 131

전륜(轉輪)

백년의 붉은 왕조 줄곧 칼을 휘두르나니
건곤이 거꾸로 돌아 중화를 희롱하네
지금은 붉은 꽃 성한 것을 똑똑히 보지만
훗날에는 연꽃이 피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

2004년 3월 5일

轉輪

百年紅朝一路殺
乾坤倒運戲中華
看明此時紅花盛
可曉它日開蓮花

二零零四年三月五日

亂世 宋詞 ····· 132
난세(亂世) 송사 ····· 133
正法看 宋詞 ····· 136
정법이 보고 있노라 송사 ····· 137
征 ····· 138
정벌 ····· 139
理智醒覺 ····· 140
이지 각성(理智醒覺) ····· 141
金剛志 ····· 142
금강지(金剛志) ····· 143
法正一切 ····· 144
법이 일체를 바로잡다 ····· 145
龍泉寺 ····· 148
용천사(龍泉寺) ····· 149
大法徒 宋詞 ····· 152
대법제자 송사 ····· 153
法輪常轉 ····· 156
法輪(파룬)은 항상 도나니 ····· 157
洪誓大願 ····· 158
큰 맹세 큰 소원 ····· 159
救大穹 ····· 160
대궁을 구하다 ····· 161
劫數 元曲 ····· 162
액운 원곡 ····· 163
危 ····· 164
위험 ····· 165
蓮 元曲 ····· 166
연(蓮) 원곡 ····· 167
斷 元曲 ····· 168
끊다 원곡 ····· 169

香蓮 ····· 170
향연(香蓮) ····· 171
法正人間時 ····· 172
법정인간 시 ····· 173
蠢 元曲 ····· 174
어리석음 원곡 ····· 175
別哀 ····· 176
슬퍼하지 말라 ····· 177
腰鼓隊 元曲 ····· 178
요고대(腰鼓隊) 원곡 ····· 179
難 ····· 180
어려움 ····· 181
師徒恩 ····· 182
사도은(師徒恩) ····· 183
神醒 ····· 184
정신을 차려라 ····· 185
天門已開 ····· 186
천문(天門)은 이미 열렸노라 ····· 187
怕啥 ····· 188
두려울 것 뭐냐 ····· 189
轉輪 ····· 190
전륜(轉輪) ····· 191
洪劫 ····· 192
큰 겁 ····· 193

두려울 것 뭐냐

당신이 두려워하면 그놈은 붙잡을 것이요
생각이 바르면 사악은 무너지리라
수련하는 사람은 법을 간직하고 있다네
정념을 발하면 썩은 귀신 터져버릴지니
신이 세상에서 법을 실증하고 있음이로다

2004년 2월 29일

怕啥

你有怕　　它就抓
念一正　　惡就垮
修煉人　　裝著法
發正念　　爛鬼炸
神在世　　證實法

二零零四年二月二十九日

洪吟

홍　　음

(二)

李洪志

堅定

覺悟者出世爲尊
精修者心篤圓滿
巨難之中要堅定
精進之意不可轉

一九九九年五月三日

二零零四年二月修改

천문(天門)은 이미 열렸노라

부처 은혜 크고도 넓어 중생을 제도하고
건곤을 다시 창조하고자 대법이 왔네
궁체와 천지를 견고히 하려는 크나큰 소원으로
작은것 바로잡고 큰것 바로잡고 삼재도 바로잡노라
세상사람 깨어나면 정념이 나오리니
만고의 천문은 이로부터 열리리라

2004년 2월 28일

天門已開

佛恩浩蕩度眾生
再造乾坤大法來
洪願穹體天地固
正微正洪正三才
世人能醒正念出
萬古天門從此開

二零零四年二月二十八日

견정(堅定)

깨달은 자 세속 벗어남을 높이 보나니
정진하는 자 마음 독실하여 원만할 수 있도다
큰 난 중에서 견정해야 하나니
정진의 뜻은 접을 수 없도다

1999년 5월 3일
2004년 2월 수정

無題

大法看人心
世人要清醒
神人鬼畜滅
位置自己定

一九九九年五月三日

二零零四年二月修改

정신을 차려라

중생이여 어서어서 깨어나거라
중원에 함정을 설치했구나
모두 법을 위해 왔거늘
왜 이치가 분명치 않는가

2004년 2월 17일

神醒

衆生快快醒
中原設陷阱
都是爲法來
何故理不清

二零零四年二月十七日

무제(無題)

대법은 사람의 마음을 보나니
세인은 깨어나야 하느니라
신(神) 인(人) 귀(鬼) 축(畜) 멸(滅)
위치는 스스로 정하는도다

1999년 5월 3일
2004년 2월 수정

見真性

堅修大法心不動
提高層次是根本
考驗面前見真性
功成圓滿佛道神

一九九九年五月八日

사도은(師徒恩)

미친 사악 4년 돌풍에
키를 단단히 잡고 항로를 잃지 않았네
대법제자는 마난을 겪으며
중압(重壓)에도 의지 변치 않았네
사제는 정을 따지지 않나니
부처의 은혜 천지를 녹이네
제자가 정념이 족하면
사부는 회천력(回天力)이 있노라

2004년 2월 1일

師徒恩

狂瀾四年颶　穩舵航不迷
法徒經魔難　重壓志不移
師徒不講情　佛恩化天地
弟子正念足　師有回天力

二零零四年二月一日

진성이 보이노라

대법 확고히 수련하며 마음 움직이지 않나니
층차를 제고함이 근본이로다
고험(考驗) 앞에 진성이 보이나니
공성원만하면 불도신(佛道神)이로다

1999년 5월 8일

心自明

法度眾生師導航
一帆升起億帆揚
放下執著輕舟快
人心凡重難過洋
風雲突變天欲墜
排山搗海翻惡浪

어려움

천신만고 십오추(十五秋)라
누가 알리요 정법의 고생과 시름을
오로지 중생을 구도하기 위함이나니
홍미(洪微)를 벗어나지 않고는 그만두지 않으리라

2004년 1월 22일

難

千辛萬苦十五秋
誰知正法苦與愁
只爲眾生能得救
不出洪微不罷休

二零零四年一月二十二日

심자명(心自明)

법은 중생을 제도하고 사부가 인도하나니
돛 하나 오르자 억만 돛이 나부끼네
집착을 내려놓으면 가벼워진 배 빠를 것이요
인심이 무거우면 바다 건너기 어렵도다
풍운이 돌변하여 하늘을 무너뜨릴 듯
산을 밀어내고 바다를 뒤엎을 듯 거친 파도 이네

堅修大法緊隨師
執著太重迷方向
船翻帆斷逃命去
泥沙淘盡顯金光
生死非是說大話
能行不行見真相
待到它日圓滿時
真相大顯天下茫

一九九九年十月十二日

二零零零年五月二十二日發表

요고대(腰鼓隊) 원곡

요고진은
법 중 신(神)이라
법고(法鼓) 소리소리 다 眞善忍(쩐싼런)이니
삼계에서 사악을 제거하고 세인을 구함이라
당당한 모습과 정념이 천문을 진동하나니
썩은 귀신들 어디에 숨으랴

2004년 1월 22일

腰鼓隊 元曲

腰鼓陣
法中神
法鼓聲聲都是真善忍
三界除惡救世人
雄姿正念震天門
爛鬼哪遁

二零零四年一月二十二日

대법수련 견정히 하고 사부를 바짝 따라야 하나니
집착이 크면 방향을 잃으리라
배가 뒤집히고 돛은 찢겨 살려고 도망가나니
흙모래 깨끗이 씻기면 금빛 나타나리라
생사란 큰소리 쳐서 될 일이 아니니
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진상을 보아야 하리라
훗날에 가서 원만할 때
진상이 크게 나타나 천하는 끝없이 펼쳐지리라

1999년 10월 12일
2000년 5월 22일 발표

報應

末世爛鬼多
披著人皮作
間隔一除盡
世上擺油鍋

二零零零年九月一日

庚辰年八月四日

슬퍼하지 말라

몸이 감옥에 갇혔다고 슬퍼하지 말라
정념정행하면 법이 있도다
조용히 생각해 보니 집착한 일 얼마이더냐
사람 마음을 덜면 악은 스스로 패하리라

2004년 1월 13일

別哀

身臥牢籠別傷哀
正念正行有法在
靜思幾多執著事
了卻人心惡自敗

二零零四年一月十三日

응보

말세에는 썩은귀신 많아
인피 쓰고 설쳐대나
간격이 제거되기만 하면
세상에 기름 가마 놓이리라

2000년 9월 1일
경진년 8월 4일

法綱

明慧救度有緣者
新生可去腦中惡
人民刀筆鬼生愁
法輪大法是正見

二零零一年一月十七日

庚辰年十二月二十三日

어리석음 원곡

미치고 미치고 미쳐서
들보에 껑충 뛰어 오르네
까마귀가 태양을 가리다니
어리석음 사악함 거짓말
백일하에 드러나네
질투의 불길 마음에 붙어 원래 모습 드러나
두꺼비 풀쩍 끓는 기름 가마에 뛰어들리라

2004년 1월 8일

蠢 元曲

狂狂狂
跳上樑
烏鴉遮太陽
蠢惡謊
大曝光
忌火攻心現原象
蟾蜍躥下油湯

二零零四年一月八日

법망(法網)

명혜(明慧)는 인연 있는 자를 구도하고
신생(新生)은 머릿속의 악을 제거할 수 있으며
인민(人民)의 예리한 붓은 귀신을 떨게 하니
法輪大法(파룬따파)는 정견(正見)이로다

2001년 1월 17일
경진년 12월 23일

正大穹

邪惡逞幾時
盡顯眾生志
此劫誰在外
笑看眾神癡

二零零一年二月十日

辛巳年正月十八日

법정인간 시

썩은귀신 이미 멸절되고
흑수는 피고름으로 변하리라
세상사람 저지른 일로
필연 모진 역병의 재앙 당하리라

2004년 1월 1일

法正人間時

爛鬼已滅絕
黑手化膿血
世人幹的事
必遭惡疫虐

二零零四年一月一日

대궁을 바로잡다

사악이 언제까지 날뛸 거냐
중생의 뜻 낱낱이 드러나는데
뉘라서 이 겁(劫) 벗어나 있을쏘냐
뭇 신의 어리석음 가소롭구나

2001년 2월 10일
신사년 정월 18일

普照

神佛世上走
邪惡心生愁
亂世大法解
截窒世下流

二零零一年二月十七日

辛巳年正月二十五日

향연(香蓮)

청정한 연꽃 법에서 생기고
자비는 향기를 풍기네
세상에 감로를 뿌리나니
연꽃 피어 하늘에 가득하네

2004년 원단

香蓮

淨蓮法中生
慈悲散香風
世上灑甘露
蓮開滿天庭

二零零四年元旦

널리 비추다

신불이 세상을 거니노니
사악은 마음에 시름 생기네
난세의 어지러움 대법이 풀어내어
세상 쇠락을 끊어 막노라

2001년 2월 17일
신사년 정월 25일

除惡

車行十萬里
揮劍消惡急
天傾立掌擎
法正去陰罹

二零零一年二月十九日

辛巳年正月二十七日

끊다 원곡

수련은 어렵지 아니하나
마음 버리기 어렵노라
그 많은 집착 어느 때나 끊을꼬
고해(苦海) 끝없음을 모두 알거늘
의지 확고하지 못하면
고비는 산과 같나니
어이 속세를 벗어나랴

2004년 1월 1일

斷 元曲

修不難
心難去
幾多執著何時斷
都知苦海總無岸
意不堅
關似山
咋出凡

二零零四年一月一日

악을 제거하다

차로 달려 십만리
검 휘둘러 악을 제거하기 급하네
하늘이 무너짐을 입장(立掌)으로 받치나니
법은 올발라 음험한 재난을 제거하누나

2001년 2월 19일
신사년 정월 27일

無

無無無空無東西
無善無惡出了極
進則可成萬萬物
退去全無永是迷

二零零一年二月二十二日

연(蓮) 원곡

만 송이 청정한 연꽃 내 심었나니
엄동설한 눈 속에도 일제히 피어나네
하늘 맑게 개고 온 동산에 봄이 오니
어여쁜 자태 백 가지라
향기는 바람에 실려 하늘 너머로 풍기네

2003년 12월 1일

蓮　元曲

萬朶淨蓮我栽
嚴寒傲雪齊開
天晴滿園春來
　仙枝百態
香風沁飄天外

二零零三年十二月一日

무(無)

무도 없고 공도 없고 아무 것도 없나니
선도 없고 악도 없고 극을 벗어났도다
나아가면 만만물(萬萬物)을 이룰 터이고
물러서면 전무하나니 영원히 헤매리로다

2001년 2월 22일

留意

一路征塵一路風
萬惡除盡萬眾生
勞心力解淵怨事
難得歡心看風景

二零零一年二月二十二日

위험

세풍 날로 나빠짐은 뭇사람 부채질 탓이라
썩은귀신 앞장서고 사람들 뒤따르네
나는 세상사람 걱정하건만
사람들은 자신을 걱정하지 않는구나

2003년 11월 20일

危

世風日下眾助流
爛鬼帶頭人跟走
我爲世人愁
人不爲己憂

二零零三年十一月二十日

유의(留意)

한편으로 여행하며 한편으로 풍경을 보나니
만악(萬惡) 모두 제거해야 많은 중생 살리네
애써 깊이 쌓인 원한 풀어내나니
즐거이 풍경 구경하기 쉽지 않구나

2001년 2월 22일

行中

天涯何處險
一覽峽中天
神仙何處尋
對面不識仙

二零零一年二月二十二日

於美國大峽谷

액운 원곡

중원 대지
오천 년 문명
풍랑 멎은 적 없네
서쪽에서 온 유령
중생을 해치고
고풍(古風)을 파괴하나니
사람들아 어서 깨어나라
신주에 대법이 전해지고 있도다

2003년 11월 11일

劫數 元曲

中原大地
五千文明
風浪不止
西來幽靈
害眾生
破古風
人快醒
神州大法開行

二零零三年十一月十一日

행중(行中)

하늘 끝 어드메가 험하다더냐
둘러보니 협곡 속의 하늘이네
어디에서 신선을 찾을 수 있으랴
마주하고도 신선을 알아보지 못하네

2001년 2월 22일
미국 대협곡에서

解大劫

多少人間亂事
歷經重重恩怨
心惡業大無望
大法盡解淵源

二零零一年二月二十二日

대궁을 구하다

고금에 있어본 적 없으나
장래는 천지가 영구하리라
영원무궁할 큰 창궁을 보고
누가 감히 또다시 아래로 내려갈쏘냐

2003년 10월 12일

救大穹

古今不曾有
將來天地久
看恆古大穹蒼
誰還敢再下走

二零零三年十月十二日

대겁(大劫)을 풀다

인간사 어지러움 그 얼마이든가
쌓이고 쌓인 은혜와 원한 수없이 거쳐왔구나
마음은 악하고 업은 커 희망이 없으나
대법은 연원(淵源)을 모조리 풀어 가누나

2001년 2월 22일

得道明

一朝天子一朝眾
朝朝接緣把法等
別管當朝緣中事
圓滿回家萬事通

二零零一年二月二十四日

큰 맹세 큰 소원

세상 변천 다 겪고 크나큰 소원 이룩하나니
길고 간고한 세월도 일념중이로다

2003년 10월 7일

洪誓大願

歷盡滄桑洪願了
歲月蹉跎一念中

二零零三年十月七日

득도명(得道明)

한 왕조 천자(天子)에 한 왕조 중생이라
왕조마다 인연 이어 법을 기다렸다네
당시 왕조 인연사 상관 말지니
원만하여 귀가하면 만사가 통하리라

2001년 2월 24일

無迷

誰是天之主
層層離法徒
自命主天穹
歸位期已近
看誰還糊塗

二零零一年三月十四日

法輪(파륜)은 항상 도나니

대법이 원용하니 건곤이 바르고
법왕은 자비로워 대궁을 만드네

2003년 10월 3일

法輪常轉

大法圓容乾坤正
法王慈悲造大穹

二零零三年十月三日

무미(無迷)

누가 하늘의 주(主)인가
층층이 법을 떠난 자
스스로 천궁의 주(主)라 하네
제자리로 돌아갈 시기 이미 다가왔나니
누가 아직도 어리석은지 보리로다

2001년 3월 14일

道中行

大道世間行
救度迷中生
淘去名情利
何難能阻聖

二零零一年三月十九日

대법제자들
중책을 어깨에 짊어졌네
중생을 구도하며 진상을 알리는구나
독해를 말끔히 제거함에 법은 끝이 없나니
신의 길은 멀지 않도다

2003년 10월 1일

大法徒
重任擔在肩
救度眾生講真相
清除毒害法無邊
神路不算遠

二零零三年十月一日

도중행(道中行)

대도가 세간에서 펼쳐지나니
미혹 속의 생명을 구도하는도다
명(名) 정(情) 이(利)를 씻어버리거늘
어떤 난이 성스러움을 가로막을쏘냐

2001년 3월 19일

去執

雖言修煉事
得去心中執
割捨非自己
都是迷中癡

二零零一年四月十六日

辛巳年三月二十三日

대법제자 송사

대법제자들
중원에서 박해당하네
천지에 도(道) 없으니 썩은귀신 날뛰는구나
정법의 크나큰 기세 눈앞에 있나니
법은 인간세상을 바로잡으리로다

大法徒 宋詞

大法徒
蒙難在中原
天地無道爛鬼狂
正法洪勢在眼前
法正人世間

고집을 버려라

비록 수련의 일을 말할지라도
마음속의 고집을 버려야 하느니라
잘라버리는 것은 자신이 아니요
모두가 미혹 속의 어리석음이로다

2001년 4월 16일
신사년 3월 23일

無阻

修煉路不同
都在大法中
萬事無執著
腳下路自通

二零零一年四月十六日

辛巳年三月二十三日

누대와 정각은 흰 구름 아래 있고
당나라 풍 새 절에 진정한 신이 있도다

2003년 9월 30일

樓台亭閣白雲下
唐風新寺有真仙

二零零三年九月三十日

가로막지 못하리

수련의 길은 같지 않으나
모두 대법 가운데 있도다
만사에 집착이 없으면
눈앞에 길은 스스로 열리리라

2001년 4월 16일
신사년 3월 23일

緣結蓮開

風流人物今何在
大法開壇相繼來
歲月悠悠千百度
緣結正果眾蓮開

二零零一年六月十九日

용천사(龍泉寺)

장려(壯麗)한 옛 절 밀림 속에 있고
새벽안개 자욱이 호수에 피어오르네

龍泉寺

壯麗古刹密林間
晨霧繚繚起湖面

인연 맺어 연꽃으로 피네

오늘날 풍류인물 어디 있는가
대법이 단을 여니 잇달아 오네
유유한 세월 천백년이라
인연 맺어 이룬 정과 뭇 연꽃으로 피어나네

2001년 6월 19일

漸齊

惡浪翻中見霞跡
各項劫數已漸齊
蒼穹法正乾坤定
返還世間掐蝨蟣

二零零一年七月十七日

천체(天體) 무한히 크나
환체(寰體) 또한 극히 크도다
대궁은 이미 멀리 갔으니
주인의 자리 더욱 눈부시고 아름답네
천성(天性)은 호기가 커
소모해도 없어지지 않네
뜻은 금강지라
대법이치로 통일되는도다

2003년 9월 20일

天體無限大
寰體又洪極
大穹已去遠
主位更絢麗
天性豪氣洪
消磨也不去
意如金剛志
一統大法理

二零零三年九月二十日

가지런히 드러나누나

거센 파도 이는 중에 노을 흔적 보이고
여러 액운 이미 가지런히 드러났네
창궁의 법을 바로잡아 건곤이 안정되나니
세간에 되돌아와 이와 서캐를 잡노라

2001년 7월 17일

真言

神佛來世間
句句吐真言
天地人神事
真機爲法傳

二零零一年八月十九日

법이 일체를 바로잡다

삼계를 뚫고 나가니
공(空)과 무(無)는 우주를 드러내네
법이 건곤을 바로잡은 지 오래 되어
잠깐 쉬려는데 악이 또 일어나는구나
사대(四大)는 이미 풍화되었고
낡은 법은 해체되고 있도다

法正一切

衝出三界外
空無顯大宇
法正乾坤久
預歇惡又起
四大已風化
舊法在解體

진언(真言)

신불이 세간에 내려오나니
토하는 구절마다 진언이라
천(天) 지(地) 인(人) 신(神)의 일이나
진짜 천기는 법을 전하기 위함이로다

2001년 8월 19일

秋風涼

邪惡之徒慢猖狂
天地復明下沸湯
拳腳難使人心動
狂風引來秋更涼

二零零一年十月二十五日

금강지(金剛志)

가을 하늘 높고 날씨는 점차 맑아져
뿌연 흙먼지 걷히네
시일을 손꼽아 헤어보니
대궁 사라질 날 얼마 남지 않았구나
미혹된 중생은 저마다 소란을 피우며
큰 위험이 닥쳐도 긴박함을 모르는구나
붕렬(崩裂)되기 전 힘껏 만회하려니
어찌 썩은귀신의 재앙을 용납할쏘냐
의지와 마음은 금강을 초월하였나니
홍미(洪微)는 내가 하고 있노라

2003년 9월 4일

金剛志

秋高氣漸清　　靄靄陰霾過
時日掐指算　　大穹去無多
迷眾各逞亂　　巨危不知迫
力挽崩裂前　　怎容爛鬼禍
志念超金剛　　洪微是我做

二零零三年九月四日

가을바람 서늘하구나

사악한 자들아 그만 날뛰거라
천지가 다시 밝아오면 끓는 물에 떨어지리라
폭력으로는 인심을 움직이기 어렵나니
광풍은 가을을 더욱 서늘케 하는구나

2001년 10월 25일

預

秋不去　　春已到
人不信　　全來到
天開口　　大地燒

이지 각성(理智醒覺)

잠깐 쉼에도 자아 성찰하고 정념을 더하며
부족함을 똑똑히 알아 다시 정진할지어다

2003년 9월 4일

理智醒覺

少息自省添正念
明析不足再精進

二零零三年九月四日

예견

가을이 가지도 않았는데 봄은 이미 왔구나
사람들은 믿지 않으나 전부 다 왔네
하늘이 갈라지고 대지는 불타오르는도다

邪惡躲　　壞人逃
功湧進　　鬼哭嚎
大法徒　　上九霄
主掌天地正人道

二零零一年十二月三十日

정벌

만리를 질주하며 요괴 진 쳐부수나니
흑수(黑手) 모조리 자르고 악한 신을 제거하노라
자욱한 안개 광풍 일 테면 일어라
한 줄기 산비(山雨)는 원정의 먼지를 씻어내네

2003년 9월 2일

征

馳騁萬里破妖陣
斬盡黑手除惡神
管你大霧狂風舞
一路山雨洗征塵

二零零三年九月二日

사악은 숨고 나쁜 사람 도주하는구나
공이 밀려들고 귀신은 통곡하네
대법제자 하늘 높이 올라
천지를 주관하여 인도(人道)를 바로잡는도다

2001년 12월 30일

大道行

舉目望青天
洪微皆是眼
上下聚焦處
大道行世間

二零零二年一月十五日

정법이 보고 있노라 송사

한(漢) 나라 천하는 한신(韓信)이 개척했고
대당(大唐) 태종은 강토를 넓혔으며
육랑(六郎) 악비는 중원을 보위했도다
무엇을 위해서인가
중생이 여기에 와 법 얻게 하기 위함이로다

2003년 8월 15일

正法看　宋詞

漢室天下韓信打
大唐太宗朝疆大
岳飛六郎保中原
爲了啥
眾生來此要得法

二零零三年八月十五日

대도행(大道行)

눈을 들어 푸른 하늘 바라보니
홍대함과 미세함이 모두 눈이로다
상하 초점이 모이는 곳
대도가 세간에서 펼쳐지는도다

2002년 1월 15일

劫

黯黯陰雲幾日渾
嚴寒盡逝已見春
眾生醒見驚心事
中原半壁覆沙塵

二零零二年一月二十二日

승냥이 이리떼 세상에 무리지어 다니거늘
난잡한 당 요괴가 선두를 이끄네
악은 갚지 않으면 안 되나니
거대한 기세가 곧 다가오리라

2003년 8월 1일

貉狼世上走
亂黨妖領頭
不是惡不報
洪勢就來到

二零零三年八月一日

겁(劫)

음침한 검은 구름 며칠이나 흐릴손가
엄동설한 다 지나고 봄이 이미 보이네
중생은 깨어나 놀라운 일을 보리니
중원의 절반이 모래먼지에 덮이리라

2002년 1월 22일

掃除

陰雲過　　風還急
赤龍斬　　人還迷
邪惡處　　有陰霾

난세(亂世)　송사

중원 상하 오천년
왕조마다 새로운 색채로 바뀌었네
말세의 하늘은 도(道)가 없나니
악이 횡행하고 요사함 또한 횡행하는구나

亂世 宋詞

中原上下五千年
朝朝代代換新顔
末世天無道
行惡又行妖

소제(掃除)

검은 구름 갔어도 바람 아직 세차고
적룡을 베었으나 사람은 아직 미혹중이네
사악한 곳 흙먼지로 어두운데

大法徒　單掌立
除餘惡　正念起
講真相　救眾生
滅惡盡　掃寰宇

二零零二年一月二十三日

수련생 문장을 읽다

예리한 필력으로 멋진 글을 썼나니
단어는 힘 있고 구절은 강함을 품었구나
과학은 온몸이 허점투성이라
악당의 허울을 말끔히 벗겼도다

2003년 7월 22일

讀學員文章

利筆著華章
詞勁句蘊強
科學滿身洞
惡黨衣扒光

二零零三年七月二十二日

대법제자 단수입장 하여
남은 사악 제거하려 정념을 일으키네
진상을 알리어 중생을 구도하나니
사악을 모조리 없애 우주를 소제하는도다

2002년 1월 23일

必然

眾惡齊下何等狂
欺世大謊翻天揚
戲做人丑發盡飆
烘托大法後下湯

二零零二年一月三十日

똑똑히 보아라

세간 비록 작으나 대궁을 모조리 따랐구나
온 하늘 다 눈이라 뭇 신들 초점 모으네
창궁을 새로 구성하고 건곤을 재창조하노라
너도 바라고 그것도 바라나니 가엾고 가소롭구나
법주가 창궁을 바로잡나니 무엇인들 벗어날쏘냐

2003년 6월 19일

看好

世間雖小 大穹盡照
滿天是眼 眾神聚焦
穹蒼從組 乾坤再造
爾要它要 可悲可笑
法主正穹 何物可逃

二零零三年六月十九日

필연(必然)

뭇 사악 함께 내려와 얼마나 난폭하였나
세상을 속이는 거짓말 하늘을 뒤집을 듯
추악한 꼭두각시 광풍을 끝없이 일으켜도
대법을 부각시킨 후엔 끓는 물에 떨어지리라

2002년 1월 30일

淘

天傾地覆落沙塵
毒害凡世幾億人
慈悲救度知多少
中原處處添新墳

二零零二年一月三十一日

당풍(唐風)

몸은 이 산 속에 있으나
마음은 선경을 거니노라
누가 옛 중원인가
대당풍(大唐風)을 모르는구나

계미 6월

唐風

身在此山中
神思遊仙境
誰是古中原
不知大唐風

癸未六月

일다(淘)

천지가 뒤집히고 모래먼지 흩날리어
독해한 세속사람 몇 억이던가
자비로운 구도를 얼마나 아는지
중원 도처 새 무덤 늘어만 가네

2002년 1월 31일

大舞台

人世五千載
中原是戲台
心癡戲中事
陸離多姿彩
醒來看你我
戲台爲法擺

二零零二年二月一日

일념중(一念中)

거침없이 대궁을 바로잡나니
거대한 난이 나를 따라 천지에서 행하네
공덕을 성취함은 나중의 일이라
하늘을 바로잡고 땅을 바로잡고 중생을 바로잡노라
진념(眞念)의 큰 소원 금강지(金剛志)이니
대홍(大洪)을 재창조함도 일념중이로다

계미년 5월 13일

一念中

坦坦蕩蕩正大穹
巨難伴我天地行
成就功德腦後事
正天正地正眾生
真念洪願金剛志
再造大洪一念中

癸未年五月十三日

큰 무대

인간세상 오천 년
중원이 무대여라
마음이 연극 속에 매료되니
현란함 그 얼마나 다채롭던가
깨어나 서로 보니
무대는 법을 위해 설치했구나

2002년 2월 1일

戲一台

天作幕　地是台
運乾坤　天地開
萬古事　爲法來
法輪轉　新三才

二零零二年二月五日

성세(盛世)가 나타나
임금과 신하가 바르고
음복(陰福)을 이어가나니
백성은 안정되고
오곡은 해마다 풍년이리로다
수련자는 더욱 밝아
하루아침 법 얻어 입도(入道)하나니
정진하고 착실히 수련해 공과 법을 성취하리라
박해를 반대하고
중생을 구도하며
신의 길(神道)을 걷는도다

2003년 3월 2일
계미년 정월 30일

出盛世
君臣正
延陰福
民安定
五穀年年豐
修者更明
一朝得法入道中
精進實修功法成
反迫害
救度眾生
神道行

二零零三年三月二日

癸未年正月三十日

연극 한 편

하늘은 막(幕) 땅은 무대
건곤을 운행하니 천지가 열리누나
만고의 일은 법을 위해 왔나니
法輪(파룬)이 도니 새로운 삼재로다

2002년 2월 5일

精進正悟

學法不急變在其中
堅信不動果正蓮成

二零零二年四月六日

대법행(大法行) 송사

法輪大法(파룬따파)는
그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워라
대궁을 이루고 중생을 양성하였나니
세 글자 진언은
이치가 분명하고 언어가 명백하나니
속인은 표면만 알아도 후한 복 받을 것이요
관리(官吏)는 얕게 알아도 사리가
거울처럼 밝을 것이요
임금이 이치를 알면
나라를 편안하게 잘 다스려
태평을 얻을 것이요

大法行 宋詞

法輪大法
深未測
成大蒼穹
造眾生
三字真言
理白言明
常人知表得厚福
官吏知淺明如鏡
王知理
安邦治國
得太平

정진정오(精進正悟)

법공부 태만하지 않으니
변화가 그 중에 있도다
확고하게 믿고 움직이지 아니하니
과위가 올발라 연꽃으로 피어나네

2002년 4월 6일

法正乾坤

慈悲能溶天地春
正念可救世中人

二零零二年四月六日

구름과 비 순환하기 오천 번
뒤덮인 먼지 털어버리고 길고 짧음을 보나니
큰 연극에 누가 풍류의 주연인가
오로지 중생을 위해 한 번 출연하노라

임오년 12월 29일
2003년 1월 31일

輪迴五千雲和雨
揮去封塵看短長
大戲誰是風流主
只爲眾生來一場

壬午年臘月二十九日

二零零三年一月三十一日

법정건곤(法正乾坤)

자비는 천지에 봄이 오게 하고
정념은 세상사람을 구하는도다

2002년 4월 6일

大法好

法輪大法好
大穹法光照
正法洪勢過
方知無限妙

인간세상으로 내려오다

파룬(法輪)이 돌 때 필연 미쳐 날뛰는 것 있나니
국력을 탕진하며 나를 위해 바쁘구나
어릿광대 요괴연극 가만히 보고 있나니
오로지 남은 흙먼지만 바람에 날리누나

下塵

法輪轉時必有狂
國力傾盡爲吾忙
靜觀丑角妖戲盡
只剩殘土風中揚

대법은 좋다

法輪大法(파룬따파)는 좋아
법광이 대궁을 비추네
정법의 홍세(洪勢) 지나고 나면
비로소 끝없이 묘함을 알리라

法輪大法好
漸入世人道
眾生切莫急
神佛已在笑

二零零二年四月二十五日

세상사 집착에 미혹되지 말고
정념을 견정히 하여라
예부터 오늘에 이름은
오로지 이 한 차례를 위함이어라

2003년 1월 28일

勿迷世中執著事
堅定正念
從古到今
只爲這一回

二零零三年一月二十八日

法輪大法(파룬따파)는 좋아
점차 세인의 도(世人道)로 들어가네
중생들아 조급해 말라
신불은 이미 웃고 있도다

2002년 4월 25일

鐘樓

洪聲震法界
法音傳十方

二零零二年五月五日

매화 원곡

탁세(濁世)에 핀 청련 같은 억만 송이 매화
찬바람에 그 자태 더욱 어여뻐라
연일 내리는 눈비(雪雨)는 신불의 눈물이라
매화가 돌아오길 바라네

梅 元曲

濁世清蓮億萬梅
寒風姿更翠
連天雪雨神佛淚
盼梅歸

종루(鐘樓)

크나큰 소리는 법계를 진동하고
법음은 시방(十方)에 전해지노라

2002년 5월 5일

鼓樓

重錘之下知精進
法鼓敲醒迷中人

二零零二年五月五日

포위 토벌

천지를 뒤엎을 듯 요괴인간 사악하니
세상 속이는 거짓말 음산한 바람 같구나
대법제자들 진상을 알리나니
정념 법력으로 요귀 소굴 때려 부수네

2003년 1월 23일

圍剿

天翻地覆人妖邪
欺世大謊陰風切
大法眾徒講真相
正念法力搗妖穴

二零零三年一月二十三日

고루(鼓樓)

큰 북채로 북 울리니 정진해야 함을 알지니라
법고(法鼓)는 미혹속 사람 깨어나게 하나니라

2002년 5월 5일

佛法無邊

香爐盡收亂法鬼
寶鼎熔化不法神

二零零二年五月五日

신위(神威)

먼지 걷히고 안개 흩어져 날씨 점차 맑아지니
세인은 미혹에서 깨어나 놀란 눈으로 보는도다
대법의 홍세(洪勢) 인간세상에 넘치나니
신불이 세상에서 행함을 다시 보는구나

2002년 12월 28일
임오년 11월 25일

神威

塵消霧散氣漸清
世人迷醒眼中驚
大法洪勢漫人世
再看神佛世上行

二零零二年十二月廿八日

壬午年十一月廿五日

불법은 끝없어라

향로는 법을 교란하는 귀신 모조리 잡아들이고
보정(寶鼎)은 법에 어긋난 신을 녹여버리네

2002년 5월 5일

入無生之門

騎虎難下虎
人要與神賭
惡者事幹絕
堵死自生路

二零零二年五月十三日

갚아라

큰 문 열어 법 전한 지 십년이거늘
들어오지 못한 중생 얼마인가
세간에 미혹되어 근본을 잊으니
광풍이 일 때 따라서 나빠지누나

2002년 12월 12일

還吧

十年傳法大門開
多少眾生進不來
迷在世間忘了本
狂風起時隨著壞

二零零二年十二月十二日

무생지문(無生之門)에 들다

호랑이를 타고 달리다 내리지도 못하나니
사람이 신과 내기를 하려 하네
악한 자 나쁜 짓을 할대로 다 하여
스스로 살길을 막아버리는구나

2002년 5월 13일

如來

帶著如意真理來
灑灑脫脫走四海

그물을 당기다

포악이 언제까지 미쳐 날뛸 거냐
가을바람 이미 서늘하거늘
썩은귀신 심지와 간담이 오싹하리니
말일에는 절망만 보게 되리라

2002년 9월 14일

綱在收

暴惡幾時狂
秋風已見涼
爛鬼心膽寒
末日看絶望

二零零二年九月十四日

여래(如來)

여의진리(如意真理)를 지니고 와
소탈하게 온 천하를 거니네

法理撒遍世間道
滿載眾生法船開

二零零二年五月十三日

누가 미혹 되었는가

미세하고 미세한 한 알의 먼지
중생을 만들어 흙 속에 묻은 것이네
미혹 중의 세인은 법 얻을 수 있으나
어리석게 날뛰는 자 도리어 세상 밖에 있네

2002년 9월 5일

誰迷

細細微微一塵埃
造化眾生土中埋
迷中世人能得法
愚狂反在塵世外

二零零二年九月五日

법리를 세간에 널리 뿌려
중생 가득 실은 법선 띄우네

2002년 5월 13일

正念正行

大覺不畏苦
意志金剛鑄
生死無執著
坦蕩正法路

二零零二年五月二十九日

청성(淸醒)

대법제자는 눈물을 거두어라
사탄 마귀 전부 괴멸되리니
진상 알리고 정념을 발하여
거짓말 폭로하고 썩은귀신 제거하세

2002년 9월 1일

清醒

大法徒　抹去淚
撒旦魔　全崩潰
講真相　發正念
揭謊言　清爛鬼

二零零二年九月一日

정념정행(正念正行)

대각자는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나니
의지는 금강으로 만들었구나
생사에 집착이 없나니
정법의 길은 탄탄하여라

2002년 5월 29일

神路難

悠悠萬世緣
大法一線牽
難中煉金體
何故步姍姍

二零零二年五月三十日

빨리 알려라

대법제자 진상을 알리려고
입속의 예리한 검 일제히 뿜어내네
썩은귀신의 거짓말을 폭로하나니
다그쳐 구도하고 빨리 알리세

2002년 8월 21일

快講

大法徒講真相
口中利劍齊放
揭穿爛鬼謊言
抓緊救度快講

二零零二年八月二十一日

신의 길은 어렵나니

유유한 만세의 인연은
대법이 한 줄로 이끈 것이네
난(難) 중에서 금체(金體)를 연마하거늘
어찌하여 발걸음이 한가로운가

2002년 5월 30일

正神

正念正行
精進不停
除亂法鬼
善待眾生

二零零二年五月三十日

두려워 떨게 하다

신필(神筆)은 요괴인간 떨게 하고
쾌도(快刀)는 썩은귀신 없애노라
낡은 세력 법을 공경치 않으니
붓 휘둘러 사나운 파도 멸하노라

2002년 7월 28일

震懾

神筆震人妖
快刀爛鬼消
舊勢不敬法
揮毫滅狂濤

二零零二年七月二十八日

정신(正神)

정념정행(正念正行)으로
정진하며 멈추지 않노라
법을 어지럽히는 귀신 없애고
중생을 선하게 대하노라

2002년 5월 30일

天又清

天昏昏地暗暗
神雷炸陰霾散
橫掃亂法爛鬼
別說慈悲心淡

二零零二年六月十六日

寫給美國中部法會

하늘이 다시 맑다

하늘은 어둑어둑 땅은 컴컴한데
신뢰(神雷)가 울리자 뿌연 먼지 흩날리네
난법하는 썩은귀신 쓸어버리거니
자비심 적다하지 말지어다

2002년 6월 16일

미국 중부법회에 보냄